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국제협력전략(CPS) 수립 필리핀 관련부처 협의

1. 출장목적

- 국제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을 위한 필리핀 관계 부처 협의
- 필리핀 중장기 개발 전략 및 농업부문 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정보 수집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자: 이대섭 부연구위원
-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기간
이대섭	2011. 4. 27 ~ 5.4 (7박 8일)

- 출장지: 필리핀 마닐라, 케존시티

3. 주요 내용

- 필리핀 “중장기 국가개발전략 및 농업부문 개발전략”에 관한 필리핀 관계 부처 추진 현황 논의
- 농업부문 주요 작목 주산지 방문 및 정책 추진 현황 자료 수집
- 향후 양국간 CPS관련 담당자 선정 및 관련 부처 네트워크 구축
- 향후 CPS 추진 일정에 따른 업무 협조 논의
- 필리핀 주요 농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논의
- 양국간 역할 분담 조율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4.27 (수)	인 천 (19:05)	마닐라 (22:00)	-	○출 국
2	4.28 (목)	체	재	○농지개혁부 ○경제개발청	○농지개혁 추진현황과 향 후 계획 ○중장기국가개발 전략 및 농업부문 관련 전략 논의
3	4.29 (금)	체	재	○농업부 차관면담 ○농업부 축산국 ○미곡관리국	○CPS추진배경 및 역할 ○정부간 역할 분담 논의 ○필리핀 개발전략 논의
4	4.30 (토)	체	재	○농산물유통국 ○특별프로젝트관리국	○농업부문 CPS 논의 ○농업부문 분야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5	5.1 (일)	체	재	-	○자료정리 및 업무협의 준비
6	5.2 (월)	체	재	○농업통계청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국	○주요 작물생산 현황, 가 격 및 통계 자료 수집 ○기술보급 실태 및 수확 후 관리 현황
7	5.3 (화)	체	재	○농어촌공사(국제협력국) ○농업부 Wrap-up 미팅	○물류체계 구축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 ○협력전략 사후관리 방안 논의 ○CPS 구축을 위한 양국 간 역할 분담 논의
8	5.4 (수)	마닐라 (12:20)	인천 (17:15)	-	○귀국

II. 주요 출장결과

□ 농지개혁부

○ 일시/장소 : 2011. 4. 28(목), 9:30~12:30/ 필리핀 농지개혁부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필리핀 농지개혁부(Jerry Pacturan 차관, Herminia Juan 차관보, Ma Celerina Afable 국제협력국장),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 주요 협의사항

- 포괄적 농지개혁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분배된 상태이며 농지개혁을 위해 농업부, 농지개혁부, 자원환경부간의 공동협력약정서 체결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현재 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유권 및 토지 보상 문제, 정치적 협상 및 생산, 교육, 인프라 등의 전반적인 시설 구축 기초가 아직도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협력국들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토지개혁법이 2009-2014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는 백만 헥타르가 아직까지 개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4년 6월까지의 농지의 분배를 마무리 할 계획임. 하지만 미곡 및 옥수수 생산지에 대한 농지개혁은 마무리된 상태임.
- 향후 3년내에 모든 계획이 완수되어야 하나 어려움이 상존하여 있음.
- 세계은행(WB)에서 국가 전체적인 개발지원전략 연구가 수행중이며 올해 중반기에 종료될 계획으로 한국의 필리핀 농업부문 협력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토지보상 문제로 현금이나 기타 다른 방안에 대해 토지은행으로부터 10불짜리면 지금 1불 받고 다음 10년 동안 9불을 받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는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필 할 것으로 예상됨.
- 토지에 대한 등기는 농민을 그룹으로 나누어 처리되며, MOTHER LOA(조합성격을 지닌 농민그룹에 제공된 등기) 형태로 발급되고 있음.

- 절차는 지주가 포기 약정을 맺고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 처리 후 토지은행은 지주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토지은행에서 토지가격을 책정하여 지불하며 지불전까지는 등기에 지주와 공동 소유로하고 토지는 농민이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함.
- 향후 계획은 남아있는 1백만 ha 개혁이 목표이며, 90%만 끝나면 법적으로는 문제없고 60-80만 ha와 20만 ha의 소작농을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음.
- 올해에 land tenure 개선이 이루어져야 내년 토지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계회사의 투자 문제해결에 힘쓰고자 함.

□ 경제개발청(NEDA)

○ 일시/장소 : 2011. 4. 28(목), 14:30~17:30/ 필리핀 경제개발청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Lenard Martin Guevarra 농산물분과 1 과장, Maricel Solatre 농산물분과 2 과장, Mary Grace M. Ramos 서기관, Arreta B. Benjamin 사무관,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NEDA의 역할: 1) 국가 전체 발전 계획수립, 2) 공공투자 계획 수립, 3) 실행계획 수립, 농업부(DA)의 역할은 생산, 수확후 관리,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고, 농지개혁부(DAR)는 토지에 관여함.
- 식량안보, 기후변화, 소득증대에 농업분야 개발에 초점을 두지만 생산의 다양성, 수확후 관리, 생산성 향상, 농촌개발, 공공투자, 환경보호, 금융대출 접근성 강화에도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임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서로 공유하기로 약정함.
- 농업부문의 중장기 계획수립은 농업부가 주관하고, DAR과 도와주고 NEDA는 간사역할을 했음. DA는 지방정부와 협력관계로 시행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함.
- 종자정책(미곡, 옥수수, 기타 곡물)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기본적인 정책임.
-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변화가 포함된 것이 특징임.

- 미국 산업은 예산문제, 농촌인구문제, 자연재해(태풍)로 인한 손실이 1.2백만 톤이 발생하여 관개수로 정비가 중요함. 하지만 관개수로는 정비된 부분이 50%도 안되고, 생산성은 조곡기준 3.7톤/ha며, 도정율은 67%로 기타 쌀이 주 작목이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필리핀의 쌀시장은 상당히 민감하며, 비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로 쌀유통의 중간상인이 차지하는 마진이 너무 높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다.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이 가장 시급함.
- 효율적인 운영이 최고의 우선과제임.
- 70% 미국 수요자는 도시에 거주함.
- 중간상인 활용을 최소화 한다.
-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채소 수요가 낮은 이유는 전통적인 식습관에서 이어지며, 향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쌀, 채소, 생산, 고기조금인 일반 밥상으로 채소의 소비가 낮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농업부 차관 면담

○ 일시/장소 : 2011. 4. 29(금), 09:30~11:00/농업부 차관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Bernadette Romulo-Puyat차관, Marriz B. Agbon 농어촌공사 사장,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CPSA작성에 대한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며 필리핀 농업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함. 따라서 농업부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차관도 적극적으로 소통채널을 일원화하여 협력하기로 약속함.
- 한국의 CPSA작성은 외교부와 기재부의 CPS와는 차별화된 농업에 국한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농업부, 통계청, 국가개발청, 기술보급청 등의 협조가 필요함.
- 농업에서 종자, 생산, 수확후 관리, 유통, 무역, 농업 정책등의 다양한 분야를 곡물, 축산, 채소 및 과일 산업으로 분류하여 작성하

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국제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 MIC관련하여 필리핀 앙가라 상원의원과의 회의 내용 중 투자를 원하는 민간 기업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달함.

□ 농업부 축산국

○ 일시/장소 : 2011. 4. 29(금), 11:00~14:00/농업부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필리핀 축산국(Patricio Sedigo 카라바오센터 센터장, Davinio Catbagan 수의과장,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필리핀 축산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도축장 시설 구축을 제안 받음. 기존 시설의 개선도 중요함. Breeding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함. 또한 가축위생 및 질병도 문제이며, 수의전문가가 부족하고 위생적인 가축사양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함.
- 종돈관리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생산비가 높은 문제가 있음. 사료가격은 10페소가량이 태국보다 높고, 생산비중 50%가 사료비용이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문제가 심각함. 이러한 이유로 국제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없음.
- 2005년부터 생닭을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는 가공육계를 수출하고 있음. 국제시장에서 품질은 문제없지만 가격경쟁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생산비용 감소방법은 사료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 29일만에 1kg을 생산할 수 있음. 과거에는 35일 정도, 사료는 1kg당 닭 1.9kg을 생산하였음. 필리핀은 상업기업이 50%, 소농들이 50%로 균형이 있음.
- 대나무 케이브로 만든 시설이 대부분이라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은 안되고,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30%정도가 수직통합으로 산업을 이끌고 있다.

- 중간상인들 때문에 가격이 높이 책정되며, 우선과제는 수확후 관리가 최우선과제라 생각함. 일괄체계 구축이 시급함. 축산분야는 Post-harvest facilities.
- KOICA 프로젝트는 카라바오 genetic improvement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카라바오 종자개선, 소고기 품질제고, 착유량 증가등을 기대하고 있음.
- 낙농산업은 상당히 협소하고 99%의 유제품은 수입되고 1%가 국내에서 생산됨.
- 신선우유도 30%만 국내에서 보급하고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70%를 공급하지만 신선우유는 아니고 UHD treated 우유를 공급한다.
- 축산업의 상업화는 2번째 우선순위로 현재까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지만 향후 추진되어야할 문제다.

□ 미곡 관리국

○ 일시/장소 : 2011. 4. 29(금), 14:30~18:00/농업부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필리핀 미곡 관리국(Evelyn Gergon 박사, Santiago Obien 박사, Edel dondoniua 기술관리직원, Enrigue Layola, 기술직, Jose Quillope, 기술직),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중장기 로드맵으로 4.35백만 ha는 2.5 기작을 합한 재배면적으로 실질적인 토지는 2.5백만 ha임. 관개수로가 정비된 면적은 1.54백만 ha., 평년 단수는 조곡기준으로 3.62t/ha, 인구증가율이 2.13%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음.
- 2030까지 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09, 2010년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급감하였지만 올해 여름은 풍작을 기대함. 하지만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긴급 정책 등이 부재하여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음. 태풍의 영향권과 가뭄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시 관리하는 정책이 부재함.
- 관개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필리핀 미곡 정책의 제 1순위로 미곡

산업진흥 재원의 약 65%가 관개수로정비에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단기 목표로는 단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급율을 높이는 것임.

- 유통부분은 기타 다른 작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상인들의 유통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여 중간 유통과정을 간소화 하는 것이 절실함.
- 소비 진흥정책으로 브라운쌀, 카사바, 옥수수, 빵 등으로 다양화하는 정책이 시행중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유통관리국

○ 일시/장소 : 2011. 4. 30(토), 10:30~13:30/ 농업부 유통관리국

- 참석자 : 이대섭박사, 필리핀 유통관리국(Jose Manto 국장, Flarino Flauta 농어촌공사 농산업 진흥과장, Melody De Guzman 농어촌공사 유통과장),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과일, 과채의 유통은 대부분 AGRI-PINOY 교역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운반시 800-1000트럭을 대기시켜야하는 문제, 도로망이 좋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려 시장까지 운반하는 도중 채소가 망가진다. 효과적인 교역장소를 건설하고, 채소가공센터를 건설하기를 원하며, 채소를 초점을 두고, 당근, 배추를 중심으로 교역을 추진하고 있음. 농민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중간상인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중간업자들이 수확물을 독차지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미들맨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필요함.
- 채소가격이 불안정한 문제도 있어 신용문제, 유통에 필요한 기반시설, 가공센터 건설등이 절실함. 조직화된 농민조직 형성 등으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계속 많은 지역에 보급할 계획임.
- 유통체계: 생산지, 미들맨(5-7의 미들맨을 걸쳐야 도매시장으로 간다), 도매시장(소매시장), 소비자로 가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생산자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실정임.
- 솔루션: 작목반을 구성하여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된다면, 은행신용

도 사용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도 있음.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어려움이 많음.

- ONE TOWN ONE PRODUCT을 추진하고자 하면 성공적인 농산업을 구축할 수 있음.
- 운영관리는 아웃소싱할 수 있으나, 직접 경영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됨. 능력배양이 우선으로 정부 유통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 RPC에서는 전문 관리 인력이 운영하고 농민들은 그로부터 교육 지도를 받게 함.
- 필리핀 쌀의 경우도 정치제로 취급되기 때문에 가격조절이 실패하면 정권이 위협받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가격대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함. 1000페소를 받으면 5SACK을 미들맨에게 줘야하는데 5SACK은 4500페소로 농민이 3500페소를 잃게 되는 것임. 따라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게 급선무임.
- 쌀시장은 생산자, 가공업자(Miller)가 도매시장(소매시장) 지배하는 구조임. 밀러와 시장사이에는 미들맨이 존재하지 않음. 밀러는 필리핀 자본과 중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음.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자본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상당한 견제를 받을 수 있음. 예)노점상 조합의 경우 중국자본과의 연결고리가 부정적으로 변하여 물건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높아 시장에서 퇴출됨.
- 인구조절도 중요함. 라구나, 바탕가스, 케존과 마닐라에 쌀을 공급했지만 현재는 이 세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계속 바뀌고 있음. 이것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다.
- 단수를 증가 하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쌀보다는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취해야한다는 입장. 쌀만 가지고는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없음.
- 재배면적을 확대할 방법이 미미하고,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인구조절, 식생활 변화로 소비를 감소시키고, 단수를 증가시켜 자급률을 이룬 다음 농민에게

는 고부가가치의 작목을 선택하여 소득을 증가시킬 기회를 줘야 함.

- 쌀, 옥수수시장은 어떻게 신용에 접근하느냐가 문제고, 미들맨들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조직하느냐가 관건임. 협동조직 구축하는 방법을 전수해주고 소액금융을 지원해주면 좋고, 유통은 RPC를 확산시켜주길 바람.

□ 특별프로젝트 관리국(수산청, 국제협력국)

○ 일시/장소 : 2011. 4. 30(토), 14:30~16:30/수산청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필리핀 특별프로젝트관리국(Iris De Vera국장, Sammy Malvas 수산청 국제협력과장), Cristy 농업부 국제협력과장,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지역수산(Municipal fishery): 15km로 해안을 경계로 허가 되어 있는 형태로 규모가 작고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 27%비중, 상업수산(Commercial): 비즈니스 규모는 다양하고 15km이상에서 포획할 수 있음 23% 비중. 양식업(Aquaculture): 해수양식, 가두리 양식 등 다양하고 50%의 비중을 수산업에서 차지함.
- 60%의 양식업 소득은 미역산업에서 나오고, 틸라피아, 밀크휘시 등이 대부분이며, 고부가가치가 있는 수산물을 양식하기를 바라고 있음.
- Post harvest activities : 냉장저장시설, 항구시설, 등 기반시설.
- 문제: Man power 및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수산관련 공기관, 지역 수산관련 단체 등의 조직적, 효과적 운영이 필요함(정보수집 및 기타 행정관련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함). 상업화하는 규제 및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확후 관리시설을 지원하지만 아직 태반이 부족한 상태고, 수확후 손실 비중(25%)이 너무 커서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함.
- 장기 계획은 수산항구를 재정비하고, 지역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및 수확 후 시설을 구축하고자 함. 상업적 배의 노후와 기술 부족으로 태평양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있음. 새로운 수

산관련 배를 만들 수 없으며 그러한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음. 조선 등 fishing vessels 건설에 대한 모라토리엄. HACPP 및 기타 규제를 해결하는 상업적 수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신 수산 항구 및 수확후 시설, 냉장시설 등이 항구에 건설되어야 함.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보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운영, 건설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지원이 대부분임.

- Long-term municipal fishery plans: mindoro and palawan이 양식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일괄체계가 건설될 예정(중국자본으로).
- 소규모 개인 낚시꾼들에게까지 모든 설비를 할 수는 없고 상업적인 수산업을 위해서는 패키지 형태의 상업항구가 건설되어 수출까지 하고 가공하고 해야 함.
- 미역에서 에탄올 생산하는 MIC가 보홀에서 팔라완으로 이전계획
- Mr. Malvas will send the comprehensive plans and background

□ 농업통계청

○ 일시/장소 : 2011. 5. 2(월), 10:00~12:30/농업통계청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농업통계청(Minda Mangabat 박사; 곡물국장, Ana Eusebio 지표관리과장, Virginia Viloria 수산통계과장, Ermina Tepora 통계분석과장), Cristy 농업부 국제협력과장,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website on bas.gov.ph has all.
- 생산관련, 가격관련, 경제지표, 분기별로 농업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년도별 핸드북 형식의 통계책을 발간한다. 축산, 곡물, 채소등의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투입재 - 비료, 농약, 농기계(노동력으로)은 없어서 fao의 자료를 참고함.
- 수산업관련 자료는 수산관련 기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관련 자료는 국가 통계청에서 제공되고 있음.
- 유통관련 자료는 농업통계청에서 직접 수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자료는 내부자료로서 요청이 있을시

제공할 수 있음.

- 축산관련 자료 등 최신 자료는 가능한 홈페이지에 Upload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민간한 농업관련 자료는 내부자료로 취급됨. 하지만 우리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음.
- 사회경제 지표는 다른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모든 자료는 요청에 의해 제공될 수 있음.

□ 농업연구, 기술관리청

○ 일시/장소 : 2011. 5. 2(월), 14:30~16:30/ 농업연구청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농업연구청(Carmencita Kagaoan 소장, Victoriano Guiam 부소장, Digna L. Sandoval 연구 기획실장, Milagros Lirbano 연구원, Anna Marie Medrano 연구원), Cristy 농업부 국제협력과장,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대학과 기타 연구기관에게 수주하여 관리함.
- 1997년 설립된 기관으로 coordinating을 주로하는 기관임.
- 식량안보, 빈곤감소, 글로벌화, 경제역 기후변화, 천연자원고갈이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장학금으로 유학을 가면 평생 정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정부 연봉이 너무 적어 다른 다국적회사로 취직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필리핀 농업의 가장 문제는 정책변화가 심하고 일관적이지 못하므로 일관된 시행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임. 예를 들어 고수확 종자를 사용하게 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다 장관이 바뀌면 보조금 지급 정지가 됨. 따라서 일관된 정책 수립이 중요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영농기법이 필요함. 파종시기조절과 다른 종자개발이 우선과제임.
- 기술보급후 모니터링이 되질 않고 있음. 얼마나 기술보급이 잘되

는지 모르고 영향을 체크할 수 없음. 이는 생산기술개발에 너무 초점을 두기 때문임.

- R&D부분에서 어떤 기술이 보급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음. 기술개발과 보급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함.
-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보급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전체적인 방향이 달라지고 효율성이 낮아짐.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 장기적인 농업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어촌공사(국제협력국), 농업부 Wrap-up meeting

○ 일시/장소 : 2011. 5. 3(화), 14:30~16:30/ 농업부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농업연구청(Marriz B. Agbon 농어촌공사 사장, RODOLFA M. GUIEB OIC 국장, Flarino Flauta 농어촌공사 농산업 진흥과장, Melody De Guzman 농어촌공사 유통과장), Cristy 농업부 국제협력과장, Susana De Guzman 농업부 사무관 등

○ 주요 협의사항

- 기술적인 부분은 약 3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가 종자문제(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부분 투자를 활성화해야하느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고, 종자는 정부가 항상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유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음. 해결방안으로는 종자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사유화를 진행하여 시장중심으로 움직이게 해야 함. 물류시스템도 보충이 되어야 함. DA가 사업 중심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면 고품질의 종자가 생산되고 물류시스템도 확충될 수 있음. 종자생산연합(Seed grower assiciation) 및 등록된 종자(registerd seed)만이 고품질의 종자를 보급하고 있어, 일반 종자생산자에게 시장이 개방되면 많은 종자가 개발될 수 있음. 확인된(certicate) 종자테스트 시스템에서는 박테리아 등의 germs만 검사함. 유전자 등 기타 유전자검사를 할 능력이 안됨. 또한 수입 종자의 규제와 더불어 지

역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활성화 시켜야함.

- 둘째, 농업용수 개발이 시급함. 관개수로개발이 이루어지면 모든 작물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효율적인 영농기술이 보급될 수 있음. 어떤식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느냐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원이 없는 것임.
-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정책방향은 시기상조임. 일반시민은 가격이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수 없음.
- 필리핀의 농산물은 가격이 낮아 대부분의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
- 정책의 추진방향은 종자생산 비용을 낮추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함. 생산비 중에서 종자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종자 생산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종자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기 때문에 종자은행은 필수적이며 회복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 종자은행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종자생산량이 증가되어 농민들에게 저렴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임. 하지만 지금은 종자은행이 없고 종자은행이 제안되긴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이나 기준 등 대체적인 문제를 컨설팅하는 것이 절실함.
- 다국적 기업이 종자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종자 산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 필요가 있음.
- 필리핀 대학에서 개발을 해도 상업화가 되질 못하는 문제가 있고, 시장에 상업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됨.

□ 향후 조치계획

- 필리핀 농업·농촌부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며, 자료 수집을 위한 각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 특히 농업통계청의 내부자료를 요청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 7월 중순까지 필리핀 협력전략 수립의 초안이 마련되어 양국간 협력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관련기관들이

참여한 세미나 개최

- 협력전략수립관련 세미나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협력 증진 방안을 수렴하여 최종 협력전략보고서에 반영 계획.
- 필리핀측 농업부문 중장기발전전략에 대한 시행전략이 수립되는 데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철저한 네트워크 관리 필요.

출장관련 사진 모음

